

강진군, 벼 품종비교 전시포서 손 모내기 추진

20여 가지 품종 직접 손 모내기로 심어 품종별 생육 상황 직접 비교 평가 가능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내 벼 품종비교 전시포에서 손 모내기를 추진했다.

벼 품종비교 전시포는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직원들이 직접 농사는 짓는 포장이다. 20a(600평)규모의 논에 강진 지역 대표품종인 새청무와 강대찬 벼는 물론 최고품질 품종과 기능성 품종, 신품종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벼 품종들을 선별해 심었다.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품종별 다른 재식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정밀한 이랑 작업을 위해 직접 손 모내기로 작업했다. 농업인들이 벼 품종별 생육상황을 직접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강대찬벼(전남10호)를 드문모

심기(소식재배) 실증요인을 적용해 이랑 하는 등 농업인드레게 포괄적인 품종선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벼 품종 비교 전시포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품종별 키, 수확량, 병해충저항성 등 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강진군에 도입 가능한 벼 품종을 발굴하고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져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 등을 농업인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품종비교 전시포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재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내 벼 품종비교 전시포에서 손 모내기를 추진했다. 벼 품종비교 전시포는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직원들이 직접 농사는 짓는 포장이다. /강진군 제공

함평, 귀농귀촌 멘토·멘티 매칭사업 사전교육 실시

함평군은 최근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에서 입교생과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멘토·멘티 매칭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역정보, 인적교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팀의 멘토·멘티 그룹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멘토(선도농업인)는 멘티(입교생)에게 귀농준비, 귀농생활, 품목기술 등 귀농귀촌 준비과정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회차 당 10만원의 멘토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멘토·멘티 사업은 예비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과 노하우를 일대일로 배우면서 농촌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입교생들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영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진행

3년간 대출금리 연 3% 지원...17일까지 신청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2022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해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이면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용기

관에서 대출 상담 후에, 6월 17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1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 제한, 재산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작년 한 해 27개 사업체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 2천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신규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코로나로 경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신안군, 발로 뛰는 치매관리사업 '순풍'

신안군은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4월부터 하의·신의·장산면을 선두로 해

지난달까지 12개 읍·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억력, 지남력, 시공간

기능 등 7개 영역으로 검진시간이 1인 20여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인 어르신은 치매전담 인력이 2차 검사 실시(신경인지검사/1시간소요) 후 치매의 심 대상이면 협약병원과 연계해 병원 진료 및 감별검사(뇌영상촬영 외 28종) 등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진단자는

약제비 지원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바쁜 와중에도 ▲각 마을 이장 ▲노인회장 ▲치매안심센터 ▲각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유관단체의 협력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많은 어르신이 동참하는 원동력이 됐다.

군 관계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무안군, 보건진료소 이용해 9월까지 건강특화사업 추진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앞장서기 위해 9월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한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이용해 건강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특화사업은 보건진료소별 특색있는 건강 주제를 선정하고 내·외부 강사를 초빙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노인 우울 예방 ▲건강 체조 ▲인지향상 교육 등 있다.

또한 군은 프로그램 운영 전후에 기초검사와 사정평가 등을 실시해 고위험군 발견시 병원이나 보건소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목포시, 박람회 참가해 관광상품 홍보

목포시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하반기 문화행사

와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한국전시산업원 주관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는 올해 전국 86개 지자체와 30여개 축제·관광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별 축제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였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6월부터 시작한 목포해상W쇼를 비롯해 목포항구축제, 목포 뮤직플레이, 문화재 야행, 전국무용제 등 하반기에 개최될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또 홍보관을 운영해 관광홍보영상 상시 상영하는 한편 전문 사회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박람회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황금사과

청정 옐로우시티 장성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 건강한 밥상의 시작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옐로우시티 장성군